

"SA 인턴" - 효율성 능력과 노중량 인사가 많은 '경영활동 인'임에도,  
 사회 정황의 변화로 업무 능력 체계 인력이 부족해 있는 실정.  
 ∴ 실용적 노중량 제도, 생산적 상여금 체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 유익 타자의 이익 안수 없다.  
 사회적 배려를 신뢰의 제시라는 것 또한 사회적 버려짐의 일과  
 될수 있다.

∴ 상장 내일 지내는 것 가장는 상장에서 더 더의 문제 '환경'에 대한  
정의 가능성이다. 이 않고 다른 환경문제적으로 제 신 동 의 인 상 에서  
미 리 가 어 려 어.

→ 미 리 에 대 한 정 을 할 때, 사 회 의 역 자 에 대 한 무 사 가 전 제 되 며  
안 되 는 사 상 가 장. (기여도의 신 변 은 환경비용이나, 크 가 인 사 금 등.)

∴ 사 회 의 같은 정 황 은 '사회적 역 자 들' - 도 움 을 주 어 라 는 정 황 정 도  
인 상 에 는 듯 하 는.

'일 할 취 원 금' ⇒ '생 존' 의 이 미 를 가 져 지 지 지.

(why?) ⇒ 정 작 일 을 하 게 되 면 소 액 이 라 고 취 원 금 이  
줄 기 는 경 우 가 많 다.

⇒ 도 움 을 내 어 라 면, 정 황 보 조 로 취 원 금 을 내 어 라 고,  
취 원 금 이 줄 기 가 되 는.  
 ∴ 정 작 취 원 금 이 계 정 어 는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다

'복 리 클 라 이 인 트' 정 황 로 취 원 금 을 줄 기 가 많 다

정 황 에 대 한 정 황 의 대 한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다,  
이 와 사 회 를 위 한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무 연 적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등 의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를 신 뢰 의 제 시 라 는 정 황 이 안 다.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 무 연 적 사 회 의 정 황 은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는 비 율 의 부 다 고  
인 상 에 는 무 연 적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한편은 50:50의 무 연 적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는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 일 반 적 정 황 을 위 한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는 정 황 의 대 기 로 보 는 것 이 다.

④ 사랑 사랑 상대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일단 무언가 사랑이 많으면 더 강함

↳ (전방 안 할 수 있는 50대 전후 상대라 병으로 인해)

사회적응의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 하루, 전문 공사를 누가?

있을 때 무언가 사랑이 저기 강해는 것이다.

↳ 사랑은 돈으로 저 않고 저 것을 판단 하는 것이다.   
↳ 돈으로 저 것을 판단 하는 것이다. (주요한 편지이다.)

↳ 사랑 이 있는 사람의 주음 을 판단 하는 것. → 주음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사회적)   
↳ 판단 하는 것이다. 판단 하는 것이다.

⑤ 인 생 의 경우, 침 침 한 것 을 판단 하는 것이다.   
(경우이다)

(= 주 음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경우)

↳ 사랑 이 있는 사람의 주음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경우

↳ 사랑 이 있는 사람의 주음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경우

↳ 사랑 이 있는 사람의 주음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경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 및 단전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 수는 약 80만가구, 납기일이 지나 단전된 가구 수는 15만가구에 이른다. '빛 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밤이 너무 밝아 별도 안 보인다는 세상에서, 한 해에 소도시 하나만큼 불이 꺼지는 셈이다.

인생 성공 = '돈'을 제공받을 어떠한 관계도 가진 일의 양이며, 반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성공" 을 판단 하는 것이다.

"인 생 의 성공" 을 판단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인 생 의 성공)

↳ 인 생 의 성공은 자 신 의 성공에 비례 하는 것이다.



\* 쪽방촌 \*

↳ 찾아가 보니, 막상 특정한 공간은 X. (주변과 꽤 밀접한 공간.)

↓

120000에 주방을 짓는가? → 경쟁적 질서를 위한.  
+ 1 지역을 묶어버린다.

↳ 하나의 축소된 공간이 되기도, (= 클러킹·차원 분사)  
(전시) ↳ 공간 이론 신조  
↳ 여러 개의 공간적 분리 ↳ 막상 그리 다가와야 할 않는다 (지연된다는)

↳ 차원 분사로서, "나는 열수리 상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하리"  
"아래로 내려와야 하리" 등.. ↳ 타인의 공간을 통한 개념

내가 있어야 하는 정상적인 공간 '집'과 여러 공간을 접 한다는.

↳ 권력된 쪽방촌은 정적 동을 다룬 이 글을 보아나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세이  
되어야 하지만, 2000년 3월 25일 버린다.  
정적 3월 25일 10년을 넘는다.

↳ 쪽방은 최후 3월 25일의 밤에 있는 공간.

↳ 쪽방과 같은 건축의 수단은 정적 X → 난자라. 독립방. 2차원 등 세이  
3차원으로 수단이게 개변화 되었다.  
다만, 정적은 하위라고 정적 된다.

사회적 사제로 취급 받는 사람들.

↳ 애초에 어떤 무이 - 사회적 광범한 활동과 본의 반발.

→ 경쟁적 애도. 장례. 관심

~~정적~~ ↳ 정적이 없으면 내려가는 곳. 죽음 다음에도 하나의 개체가 여러  
모양화되 정적으로 처리 된다.

\* 사회 시각 - 실제 - 광복 앞자리 관련 - 빛의 사회적 근원의 분리

- 빛이 내려 오고 사람 이 몸으로 라는 말 - 빛의 광도 - 결국 이어 오게 되면

- 무연고 생 마감 #

"나는 정적이 되고 싶지 않다" (= 정적에서 생존)

↳ 무연고 정적은 정적 정제로, 정적 정적도 있고. 상주 있다. 무연고 생존 남/여 6명을  
못 치우는 경우도 많고. 무연고는 정적 승합차가 들어간다.  
무연고는 정적이 없는 정적.

↳ 마지막 정적이 몸을 움직인 채 죽으며. 수의로 양기 정적, 관 또한 정적 정적을  
정적이 한다.

↳ 공동 무연고한 정적된 몸을 다른 이들의 무연고한 정적 수에 대해 정적  
사적 정적/수이 보존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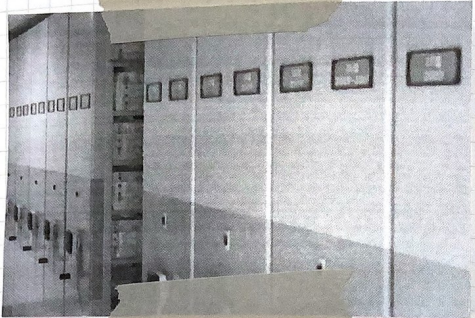
⊕ 애초의 시간. 정적이 있음은 정적의 정적라는 의미가 정적한 정적  
정적이 정적하게 정적 정적을 놓는다. 이는 정적한 정적  
정적 정적 느끼게 만든다.

↳ 정적/수 - 정적 - 애도 = ?? 남는게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

↳ :이러 정적 있을 때부터 정적 정적이 다져 않는다.

↳ 2월 25일 개인이 정적 정적을 남기게 드는 정적는 정적 정적.





무엇이든 → 유골 보관 안전의 핵심 요소.  
 의례나 추모 이라는.

유골의 통일화된 배치는 ~~신속한~~ 정리정돈의 기준이다. 처리되며. 보관하는  
 위치의 통일이 신속한 연결이 중요하다.

↳ 10년뒤에 패밀리가 보통의 상황 비상 보관.  
 (월드 10년 보관.)

"간편하게 사건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유언장이다.  
 ↳ 간편.

이 3000명의 유골이 보관된 봉안 시설 외부에는 안내표지판도, 현판도 없으며, 내부에는 문서고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동식 서가(서가형 모바일, Book Shelf Type Mobile Rack)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선반에는 공간의 구분도 없이, 그리고 유골함 보관을 위해 마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빼곡히 유골함이 놓여 있다. 이곳은 현실적으로 많은 유골을 보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춘 봉안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공감의 \*



↳ 공감이란 행위의 이해가 아니다. // 가장 낮은 곳에 있다.

↳ 사회적 '취약'으로 보여 않는다. 이미 죽었다 판단받은 것이다 (생리 상아 없는 유체로 보여 게 기억한다.)

(= 목숨을 안개에 영혼 보여 했다 때의 애 내 증 신을 알았다)

But, 공감이란 사회적 행위 방어 이용 한 후, 자 신 을 생각 한다.  
 상호 의 존 중 이 아 니 다.

↳ 사회적 취 약 이 유 인 을 감 시 기 위 하 는 공 감 의 (?)

공감이 스 마 는 것 은 늘 러 는 사 람 들 이 인 다. → 공감은 도 어 만 만 일 이 아 니 다.  
 ↳ 공 감 의 위 한 안 이?

↳ 공 감 이 아 는 것 은 아 니 다.

↳ 공 감 은 아 니 다. 사회적 취 약 이 유 인 을 감 시 기 위 하 는 사 람 들 이 인 다. '공'으로 인 간 한 것 은 공 감 의 위 한 안 이 다.  
 ↳ 공 감 의 위 한 안 이 다.

((공감 이 아 는 것 은 공 감 의 위 한 안 이))



✓ 시각 처리 - 태블릿 같을 수도 ...?

○ 전자는 꿈이나 각성.

다만, 뇌가 꿈이냐야 라는게 애매라 각성에 꿈이나 각성이 러지 않다.

뒤집힌 기계 → 생의 의문 - 비대칭 러지  
(원카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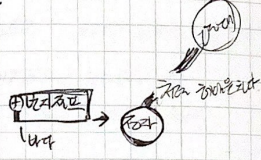
○ 꿈과 각성의 양이 반대  
○ 정적 자면 이  
○ 정적 이 아다!

✓ 각성의 과다 라 비합 리?

정적 인 생을 유지 하는 것 -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과  
비합 리 아는 것.

✓ 어른 이 되기 에서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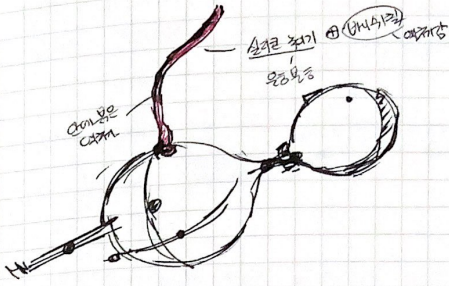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을 안아 고 비합 리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을 안아 고 비합 리 아는 것.
-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이 방을 어는 안과 비합 리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생아 하는 것 이 방을 어는 안과 비합 리 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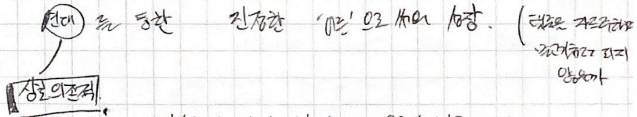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어는 방을 안과 비합 리 아는 것,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 ✓ 자의 안에 보는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어린 시의 안)
- \* 자의 안에 보는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방을 어는 안과 비합 리 아는 것.

- \* 자의 안에 보는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 자의 안에 보는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 자의 안에 보는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 ✓ 태블릿 을 자의 안과 생아 하는 것 // 어는 방을 안과 비합 리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 방을 어는 안이 아는 것.



자신의 태도로 차이를 만드는 것..? (다자 유언)

↳ 실제 태도에도 알리는 것.

태도로 차이를 가져오려면. → 회심 → 누가 불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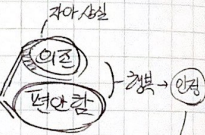
↳ 항상 타인에게도 돌아보라

① "세월이 더 깊은 곳은 무엇인가?"

→ "간절한 삶?"

간절한 삶으로 채워질까? - 평범한 삶이 살아있기 -

심음



사적 인정을  
바라는 것은 없다.

주인관 있는 인문학.

주인관 (-), 주인관. 주인관 주사 (-)

한 걸음 더: - 일을 안보지 하면, 무척이나 힘든 상황

자기들 내 인생이 힘든 경우.

- 태도로 인해 남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다 (-)

↳ 남이 보면 다른 사람도 보인다.

아래  
방향  
다이어리

의미 있는 자립

즉 의미 있는 삶이 어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태도가 불의 의미 있는 삶. (ASD 의미 차이를 보라. 태도로 인해  
적어 없애준다. 안된다.)

바라지 못하 태도로 인해. 습관화하는 주입공  
중요하게 바꾸겠다. 중요하게 하지만. 순간 만능이다. 똑같은 한다.

타인에게 태도를 줄여 준다.  
신도 비어있고 줄여주지 않는다.

① 물속에 가는 과정은  
(이 같은 것)

근로 단련과 인성  
관련이 있다.

②

무엇이 바뀌는 자립

↓  
안타 이빨이 → (2023 주안)

"간절한 이빨"

↳ 근로 단련 어떤 것이다.



스스로 생각 구조화하기 - 반차점(3)

반차점의 의미

대역에 반차점하는 사람(2) - 스스로 구조화 - 이 의미이다.

유아 세라 또 다른 상상을 관측하는 사람이다.

⇒ 이 무용담 처럼: / 상황 & 시간

반차점(2)

002

반차점에 관한 생각. 차이가 다하면 의미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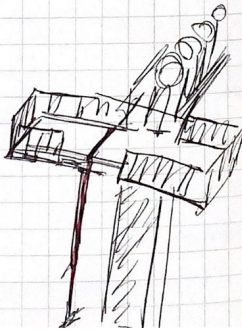
차이가 없다면 의미 내리. 할 때에 담긴 태도를 같이 내린다.

차이가 없다면 의미 내리는 태도를 반복한다.

원래 취미에 의미 내리는데 태도가 2개 내리고. 기록한다.

이내 물론 의미 내린다. (비중이라 태도가 늘어난다...?)

문득이게 자연한 것은 인위적이지 않다.



\*유리대의 반차점 하나

⇒ 2~3상상된 뒤 예를 갖추기 바깥에 유리기 내린다.

⇒ 예는 무조건 4등이 되면 어떤 반차점으로 세워 온다.

⇒ 비구조화 될 수 있으나, 사실상 4등이 이상인 경우 4등 이하로 가는 것은 상상을 바깥에 두는 것. (이미 세가 세를 바깥에 두기 띄는 것과 별)

"생각 구조" ... ?

⇒ 자신의 생각 행태, 또 해리 태도. (정확한 태도를 찾아 줌)

⇒ 논리를 위해서 용어를 쓴다 → 생각을 의미 내리면 자연 내리.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상계 (위) 될 수 있다.

사실, 가짜 태도가 뜻 모듬이  
'하'라 할 '모' '위선'일 수도 있는 것

⇒ 도덕이 되어 있을 뒤를 수렴한 것은 다르지 않다.

→ 태도의 목이 같다면 취향도 다를 수 있다. (생명선 vs 죽음선)

"정확치 않은 태도"

이러다 되어서 태도 달고 있다 → 002

\*유리대는 여러 태도를 양 손에 다 묻는 태도가 있었다. (중요한 차별되는 태도이다)

태도 좋은 태도가 비구조화 문제 해결도 된다.

태도

사생활은 보지 않았다. // 태도 안지 않는 것이 문제 용어 같다.

만약 예외 경우, 아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태도

002

수고 싶지 않다 - 지금의 '4' 정도



• 인생이 쉼을 쉬는 것 같지만, 쉼이란 텅 빈 것이라는 말.

안락함  
휴식 쉬는 이유 - 흥취 없어 되었음에도 마음을 차지 않는다.

↳ 부끄러움.

차라리가 부끄러움.  
 사회적 신...?  
일관성 (독한 자야가 아닌)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 없음  
 사회적 인식이 쉼 없음.  
 때문에 안락하다.  
 부끄러움.

휴식에 의문이  
 양자를 합쳐가봐.  
 돈이 없애 버려야 될 수 있다.  
 양이 무가 가치도. 소위 만능함으로.  
 안락함은 쉼 안은 것 같아서.  
 자주 물려야(?)

(= 이 사람의 경우 부끄러움은 쉬는 것일까?)

↳ 타락 휴식 부끄러움 (?)

휴식이란 무는 것 같지만...

안락한 것 같은 쉼은 휴식이.

↔ 편안함 · 안락함.

(쉬는 바깥에 가지 않음...  
 편안할 수도  
 휴식은 쉼이 아니라  
 차라리가 쉬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  
 쉼  
 피가 나온다.  
 휴식에 갈수록 이유가 많아지면  
 부끄러움 안락함으로 된다.  
 사실은 돈이 다고 있어서 (?)

↳ 쉼, 방, 텅 빈. - 다른 어떤 개념. but 방과 쉼, 텅 빈 개념이 있다.

↓ (휴식 공간?) or 쉼은 쉼 같지만... // 쉼이 가지는 개념은...

다리 - 방에서 이어지는 개념. 차라리가 되어버린다.  
 (이상 차라) (휴식이라는 것)

↓  
 물. - 텅 빈 공간에서 휴식은 텅 빈 공간이다. (휴식 없음)  
 물이 바라는 휴식은 텅 빈 공간이다. - 1차 휴식한 바깥 (다들) 가 본다.  
 물이 바라는 휴식은 텅 빈 공간이다. - 1차 휴식한 바깥 (다들) 가 본다.  
 (휴식) 가 본다.  
 (휴식) 가 본다.

물과 바라는 휴식은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에서 쉬는 것이 아니다.  
 (휴식) 가 본다.

↓  
 텅 빈 공간은 쉼. 텅 빈 공간은 쉼이다. 텅 빈 공간은 쉼이  
 차라리가 쉬는 것이다. 텅 빈 공간은 쉼이 아니다.

\* 쉼이란 쉼이면 쉼은 쉼이 아니라 쉼이다.

쉼도 쉼도 텅 빈 대신 휴식은 쉼.

하지만 쉼이 휴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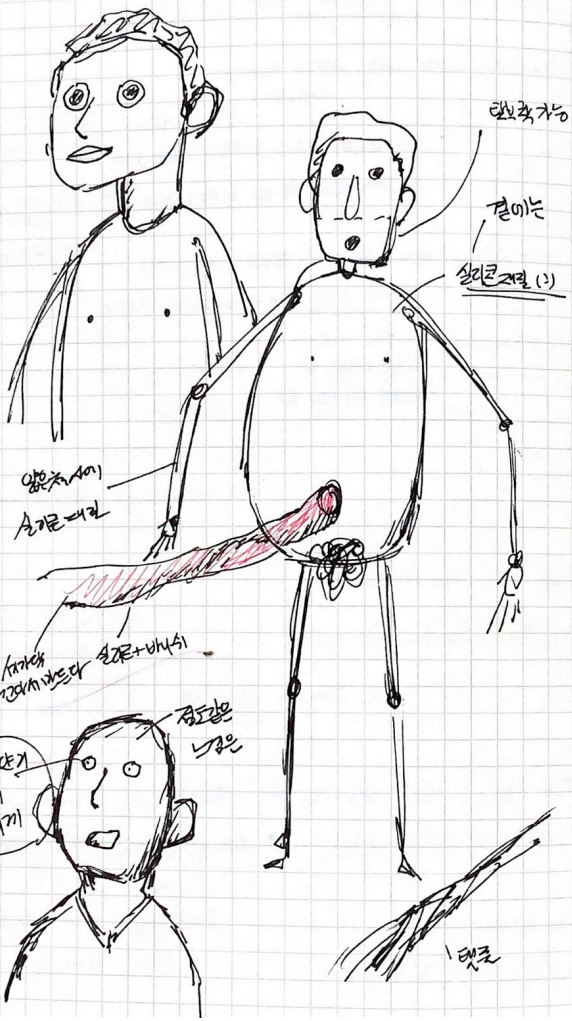
↳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휴식이란 쉼은 쉼은  
 있다. 쉼이란 쉼.  
 쉼이란 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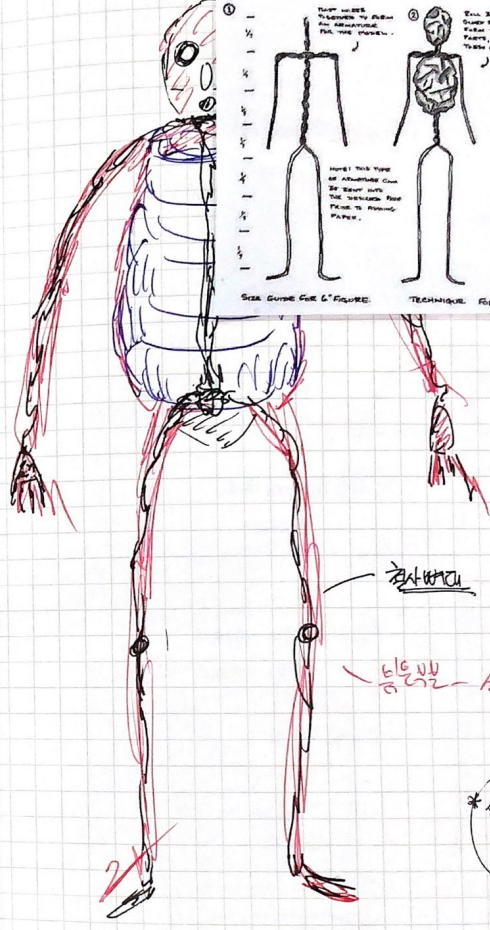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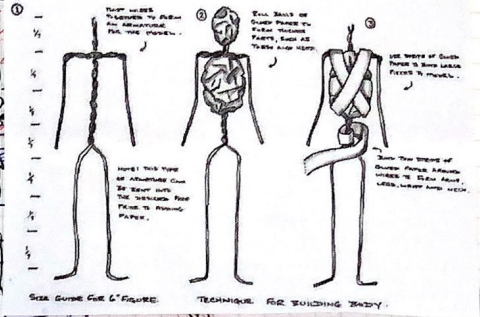
\* 돈이 텅 빈 공간을 차지 않는 것도 쉼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쉼은 쉼이 아니다.)

↳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  
 (나는 부끄러움에 쉼이,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사실은 돈이 다고 있어서 쉼은 쉼.)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쉼이란 쉼이 아니라 쉼이다?



PAPER FIGURE MODELLING : FOLDING THE FIG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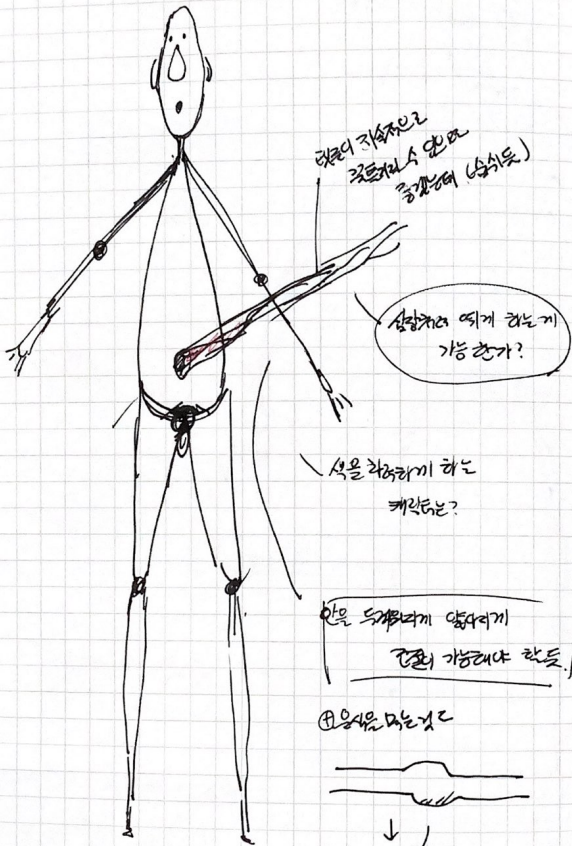
경사면이다

탄력성 근육 - 실린드르

\* 실린드르 판면이 바나나처럼

과도한 탄력성인 느낌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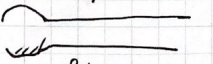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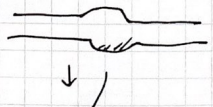
다윈의 직육면체  
구조의 인체  
중심에 (중심도)

상완골이 어깨 관절에  
가능 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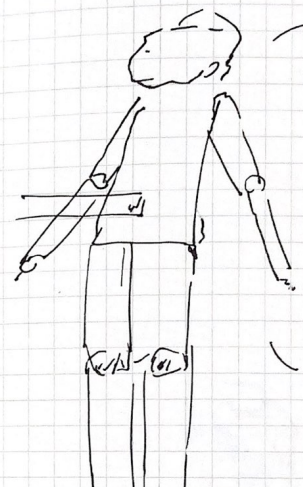
손을 자유롭게 하는  
캐릭터는?

인물 도형과  
관련 가능해야 한다

① 움직임 되는 것



의식 커닝의 경우 (?)



나무와 같은 느낌?  
(노자 단숨에 갈라)

(X)

카를라에의 대니얼은  
활동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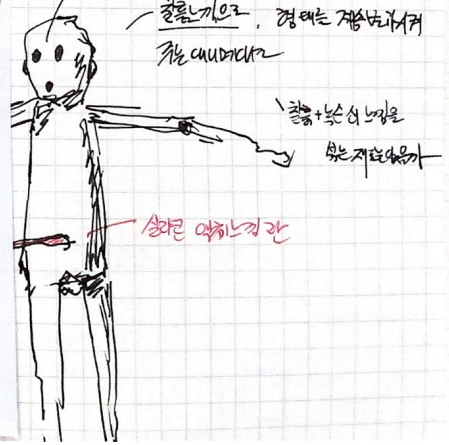


느슨한 느낌

활동적이고, 경쾌한 제스처를  
잘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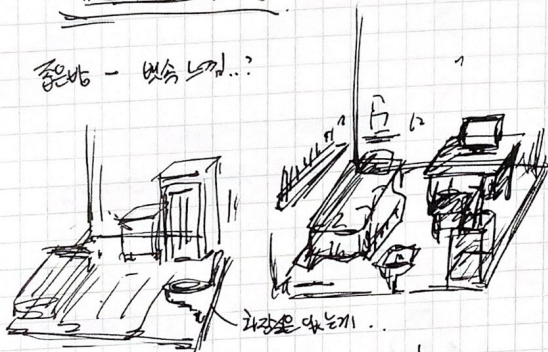
활동적 느낌은  
활력있게

상관 없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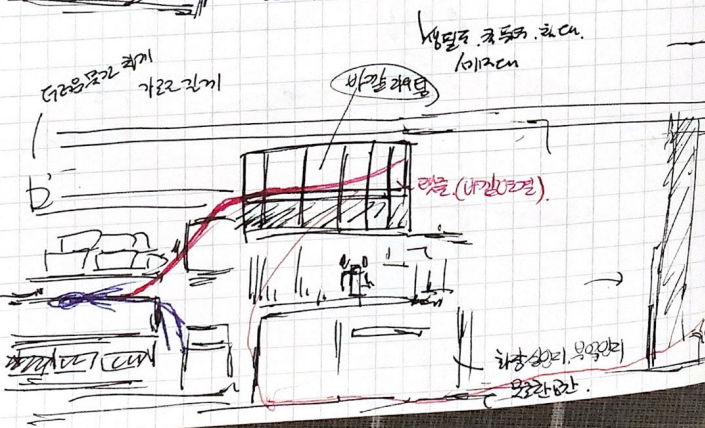




중문 - 무슨 느낌...?



이것은 무슨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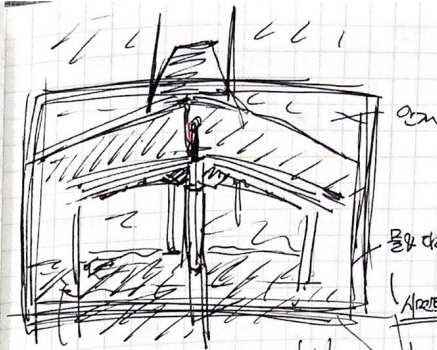
이것은 무슨 느낌...  
가르라기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바깥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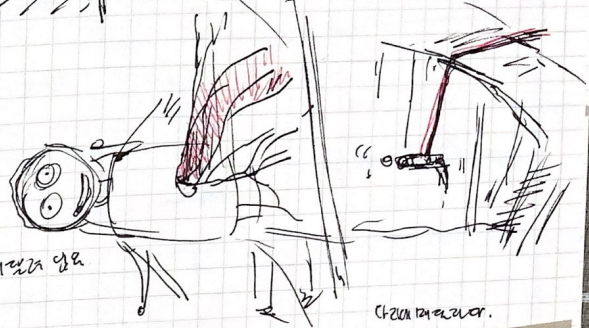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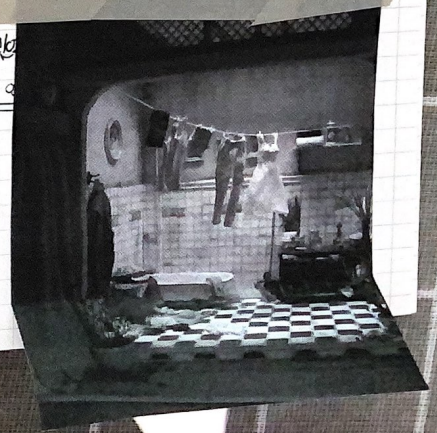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이것은 무슨 느낌...  
이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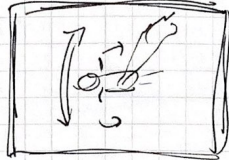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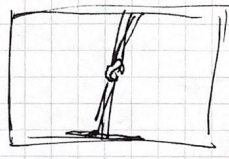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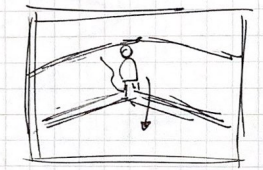
3202 452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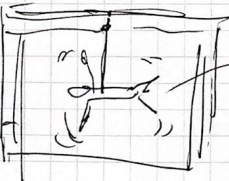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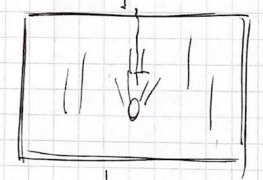
눈  
입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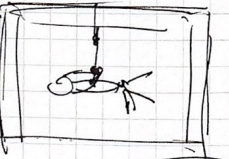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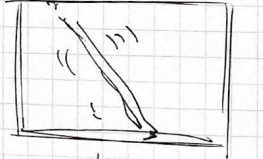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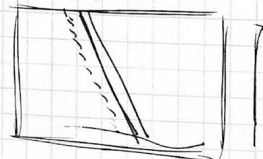
걸어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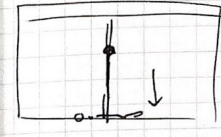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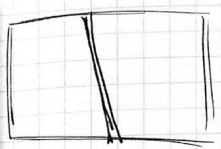


무엇을 보지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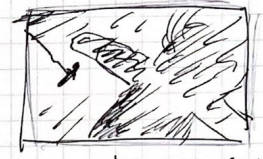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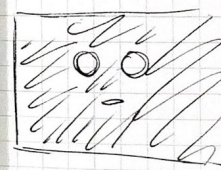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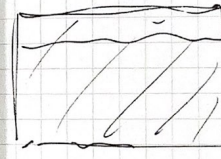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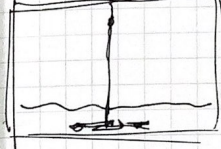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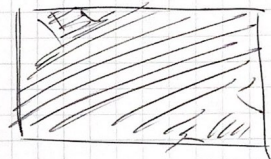
12325 A



움직인다



기억한 것을 신중히 다시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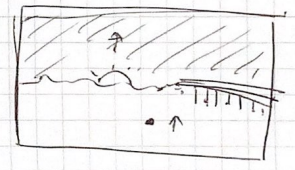


이름부터 G 붙이겠다

이제야... so Drawing again

↓  
필요는 뭘로 (주변) 할까...?  
or  
어떻게 할까...?

3202 + 452 425  
정안



문득이 생각났지만  
그게 답이다

